



즉시 배포용: 2017 년 1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사건을 뉴욕주 헌법에 성문화할 데 관한 개헌안을 제안**

수정안은 주정부가 연방법의 변동과 관계없이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사건을 통하여 수립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함

제안서는 “가족계획 지지(I Stand With Planned Parenthood)” 집회와 가족 계획 지지의 날(Family Planning Advocates’ Day) 행사에서 발표 - 동영상 확인은 [여기](#)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의 다음 단계: 항상 위를 향하여(New York’s Promise to Women: Ever Upward) -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973 년의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 사건으로 쟁취한 보호 사례를 주 헌법에 성문화하여 뉴욕 여성의 선택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히거나 새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에서 변경할 경우 뉴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임신 권리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임신 선택권에 대한 모든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는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뉴욕주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 운동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와 전국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뉴욕의 선택 권리를 항상 지켜드립니다.”

주지사는 “계획된 가족 지지” 집회와 가족계획 지지의 날 행사에 1,600 여 명의 시민과 가족계획 연합회(Planned Parenthood) 회장 Cecile Richards 의 앞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발표 동영상은 유튜브(YouTube) [여기](#)와 TV 품질 파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우 대 웨이드 사건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표적인 판례로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은 미국 헌법에서 여성이 태아가 생명력을 갖기 전 혹은 본인의 생명 혹은 건강 유지를 위하여 임신 기간에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이 있는 지 40년이래, 그의 핵심 원칙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낙태 권리는 헌법으로 보호되었습니다.

## 뉴욕의 임신 건강 확보

이 제안서는 Cuomo 주지사가 이달 초에 뉴욕의 임신 건강 보장을 위해 취한 최근의 조치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에서는 보험사에 다음의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 모든 피임약과 장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를 받은 피임 분만 방법 중에 최소한 한 가지 피임법에 대해 적정가 보험법의 장래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받지 않고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
- 보험 가입자의 최초 3개월간 피임 보급품 배급에 대해 보험 혜택 제공할 것.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하고 같은 보험 정책 혹은 갱신한 보험의 혜택이 적용하는 같은 피임약에 대한 배급은 보험사가 반드시 동시에 최대 12개월간 모든 피임약 처방약에 보험 혜택을 적용할 것.
-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 서비스에 보험 혜택 제공할 것. (높은 공제금 보험 정책 가입자는 제외)

##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 항상 위를 향하여(New York's Promise to Women: Ever Upward)

제안된 개헌안은 Cuomo 주지사가 여성 인권을 위해 지지하기 위해 취한 최신 조치들입니다. 이 일련의 조치들을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 항상 위를 향하여”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에만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여 “*Enough is Enough*” 법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과 싸웠으며, 직원 수에 관계없이 직장 내의 성희롱을 방지하였으며, 임신 차별을 없앴으며, 전국에서 가장 길고 포괄적인 포상 휴가 프로그램을 정했으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뉴욕주가 여성에게 한 약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액츠(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위원회 회장 Kim Atkin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계승하였으며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권리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보호가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임신 권리에 대한 주정부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이 개헌안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 권리는 주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연방 법의 변동과 관계없이 박탈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의 선택 권리를 위하여 당당하게 나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